

##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을 매개로

김은혜\* · 손한결\*\*†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perceived by adolescents on Eudaimonia: The Mediating Effect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Eun Hye, Kim\* · Han Gyeol, Sohn\*\*†

\*Researcher, Ewha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PhD,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udaimonia perceived by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9,021 adolescents, with data taken from the 6<sup>th</sup> year(2018) panel survey. All variables were evaluated by self-report of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21.0 and AMOS 21.0.

**Results:** First, social capital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 direct effect on eudaimonia. Second, social capital perceived by adolescents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eudaimonia through human rights consciousness.

**Conclusions:** This study highlighte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 was identified as important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eudaimonia.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further research and educational practices for promoting the eudaimonia in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Eudaimonia, Human rights consciousness, Social capital

---

접수일 : 2021년 04월 28일, 수정일 : 2021년 07월 22일, 채택일 : 2021년 07월 23일

교신저자 : 손한결(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249-9173, Fax: 031-249-9173 E-mail: hgson00@hanmail.net

## I. 서론

청소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낮은 행복감(Kazdin, 1993) 혹은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020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4명(39.9%)은 평상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10명 중 3명(28.2%)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 정체성의 갈등이나 혼란, 학업 및 진로결정의 부담 등과 같은 요소들이 웰빙 혹은 행복감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언급된다(Torsheim & Wold, 2001).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 또는 특정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행복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Deci & Ryan, 2008), 청소년의 낮은 웰빙수준 혹은 행복감은 심리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Zimmer-Gembeck & Skinner, 2008)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OECD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는 주관적 웰빙이란,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life evaluation), 감정 또는 정서(affect), 유데모니아(eudaimonia)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유데모니아는 삶의 목적과 가치 및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이다(OECD, 2013). 유데모니아에 대한 여러 학문적 정의는 다양하지만 삶에 대한 평가나 감정요인들을 통해 측정되지 못하는 다양한 측면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데 그 장점이 있다. 유데모니아는 그리스어로 선함을 뜻하는 'eu'와 정신을 뜻하는 'daimon'의 합성어로 Horney(1950)의 '실제자아(the real self)', Maslow(1968)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같은 성격 이론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Waltermann(1993)이 웰빙의 두 가지 개념으로 유데모니아와 헤

도니아(hedonia)를 대조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Ryan & Deci(2001)의 웰빙과 관련된 이론에서 헤도닉과 유데모닉 관점으로 나뉘어 진행하면서 유데모니아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유데모니아와 헤도니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특히 '유데모니아'라는 용어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개념화되고 조작화되었다. Telfer(1980)의 정의에 따르면, 유데모니아는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삶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자기표현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고, Ryff(1989)는 넓은 의미에서 삶의 어려움이나 도전에서 충분히 기능하고 성공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이를 정의하였다. 그동안 유데모니아는 아동,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더 많이 연구되었는데(Heinzelman, 2018), 최근 학자들은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경험이나 인식과 같은 관련변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의 웰빙 측정에 유데모니아 척도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Kosher et al., 2014). 즉, 이와 같은 기존의 유데모니아 연구 관련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유데모니아 관련 변인들에 주목하여 관련 변인들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Durkheim(1960)이 사회적 통합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프랑스 사회학자 Bourdieu(1986)와 미국의 사회학자 Coleman(1990)에 의해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Bourdieu(1986)은 사회적 자본을 단체 구성원의 상호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구성원 상호간의 제도화된 자원이라 정의하면서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 Coleman(1990)은 관계구조 내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촉진하고 개인의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관계자원으로 정의하여 두 학자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 의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발생하는 혜택에 초

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자원은 형태가 없는 가상의 자원이며, 하나의 집합체로서 사회나 개인과의 관계에 따라 생성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정순돌과 성민현, 2012). 최근에 사회적 자원은 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사회적 불평등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인식되고 있다(Putman, 2000). 사회적 자원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가정 외 사회적 자본(학교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관계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신뢰와 규범 및 네트워크는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Coleman, 1990).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질이나 가족의 구조가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등을 강조하고, 학교 사회적 자본은 학교 맥락에서 과목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 및 신뢰, 학교의 규범적인 구조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관계의 긴밀성이나 지역사회 내 제도간의 관계, 지인들 간의 상호작용, 사회참여, 네트워크의 개방성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개척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완충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Cramm et al., 2013) 청소년의 유테모니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심수진(2016)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의 공정성 평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신뢰도, 정치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은 유테모니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과 유테모니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유테모니아보다 더 넓은 의미인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의 신뢰와 같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이웃의 신뢰와 같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박희봉과 이희창, 2005; 성은모와 김균희, 2013; 신미정과 이양수, 2018; 이진향과 오미옥, 2014).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는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심리, 사회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부모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동·청소년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법적으로 보장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김진석, 2015).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독립적인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데에는 UN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의 역할이 컸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국내외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어 왔다(박병금과 유은선, 2011). 인권의식은 개인과 사회구성원에게 주어진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태도로(김자영, 2011),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보호역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책임이 필요하다. 문선화 등(2000)의 청소년 행복의 전제가 되는 삶의 질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권보장 및 인권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김진석(2015)은 청소년의 행복감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 및 시민권적 의식과 경험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 인권의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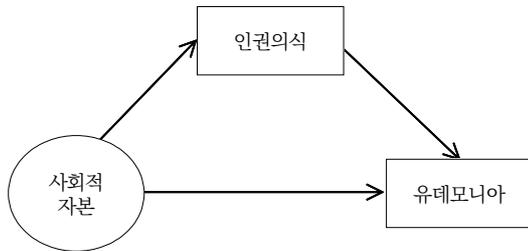
이와 같이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 변인, 즉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두 변인 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박봉규(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사고방식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경우 자녀의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정화(2016)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 및 지지경험 등을 포함하는

학교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김영신과 박가나(2014)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친인권적인 교실 문화 경험을 통해 증진된다는 점을 밝혔다. 즉, 청소년의 발달단계의 특성상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학교 문화 등과 같은 학교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정윤미 등(2021)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과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권리존중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인권의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선행연구들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고(구정화, 2016; 김영신과 박가나, 2014; 박봉규, 2011; 정윤미 등, 2021), 높은 인권의식이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김진석, 2015; 문선화 등, 2000)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유테모니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테모니아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유테모니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매개효과에 주목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테모니아를 향상시키고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인권의식, 청소년의 유테모니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의 6차년도 자료(2018)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부족이나 강화해야 할 부분의 분석과 함께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되었다. 6차년도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9,0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684명(51.9%), 여학생 4,337명(48.1%)이었으며,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2,733명(30.3%), 중학생 2,846명(31.6%), 고등학교 3,441명(38.1%)으로 고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정 8,069명(89.4%)으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정 653명(7.2%)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N=9,021)		
	구분	빈도(%)
성별	남학생	4,684(51.9%)
	여학생	4,337(48.1%)
학교급	초등학교	2,733(30.3%)
	중학교	2,846(31.6%)
	고등학교	3,441(38.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069(89.4%)
	한부모가정	653(7.2%)
	조손가정	108(1.2%)
	기타	173(1.9%)
	무응답	18(0.2%)

## 2. 측정 도구

### 1) 사회적 자본

사회 자본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YHCI)의 2, 3차년도 데이터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신뢰, 애정 등 사회적 관계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가정자본, 학교자본, 지역자본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가정자본 3문항, 학교자본 4문항, 지역자본 3문항의 총 10 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만족도와 신뢰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가정자본은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등이, 학교자본은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등이, 지역자본은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등이 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가정자본 .89, 학교자본 .77, 지역자본 .67이었다. 지역 자본의 Cronbach's  $\alpha$ 가 다소 미흡한 수준이긴

하나, 신뢰도는 문항수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Streiner, 2003; Tavakol & Dennick, 2011), 지역 자본의 낮은 신뢰도는 적은 문항수에 때문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50 혹은 .70 이상인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문헌 (Helmstadter, 1964)에 근거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 2)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YHCI: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의 3차년도 데이터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총 5문항이며,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79이었다.

### 3) 유데모니아

유데모니아는 OECD(2013)의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의 유데모니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총 6문항으로 심리적 웰빙의 지표인 낙관성, 자율성, 가치감, 능력, 자존감 및 회복탄력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데모니아 웰빙 수준이 높은 것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3. 자료분석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고자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 및 유데모니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인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이 유데모니아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를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유데모니아 간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 인권의식 및 유데모니아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 및 유데모니아에 대한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및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변인의 왜도(-1.12~-1.13)는 절대값 3이하, 첨도(-.30~1.15)는 절대값 10이하라는 정규성 가정의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가정자본 4.27( $SD=0.76$ ), 학교자본 3.96( $SD=0.69$ ), 지역자본 3.56( $SD=0.74$ )이었고, 인권의식의 평균은 3.69( $SD=0.74$ ), 유데모니아 평균은 3.72( $SD=0.76$ )로 모두 중간 이상의 점수가 나타났다. 문항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는 각 문항의 분산팽창지수(VIF)가 1.58~2.02에 존재하여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기준(Myers, 1990)을 고려할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가정자본( $r=.40, p<.001$ ), 학교자본( $r=.50, p<.001$ ), 지역자본( $r=.51, p<.001$ )은 인권의식과 정적 상관을 보여 사회적 자본을 높게 지각할수록 인권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의식과 유데모니아도 정적상관( $r=.50, p<.001$ )을 보여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유데모니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가정자본:  $r=.58, p<.001$ , 학교자본:  $r=.60, p<.001$ , 지역자본:  $r=.55, p<.001$ )과 유데모니아 역시 정적 상관을 보여, 청소년이 사회적 자본을 높게 지각할수록 유데모니아는 높았다.

〈표 2〉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N=9,021)				
		1	2	3	4	5
사회 자본	1. 가정자본	1				
	2. 학교자본	.58***	1			
	3. 지역자본	.51***	.63***	1		
	4. 인권의식	.40***	.50***	.51***	1	
	5. 유테모니아	.58***	.60***	.55***	.50***	1
	M	4.27	3.96	3.56	3.69	3.72
	SD	0.76	0.69	0.74	0.74	0.76
	왜도	-1.12	-.58	-.13	-.27	-.25
	첨도	1.15	.45	-.08	.06	-.30

\*\*\* $p < .001$ 

## 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이 유테모니아에 미치는 경로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이 유테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

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262.80(df=4, p<.001)$ , CMIN/DF = 65.70, NFI = .99, TLI = .96, CFI = .99, RMSEA = .08 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적합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N=9,021)						
$\chi^2$	df	CMIN/DF	NFI	TLI	CFI	RMSEA (90% CI)
262.80	4	65.70	.99	.96	.99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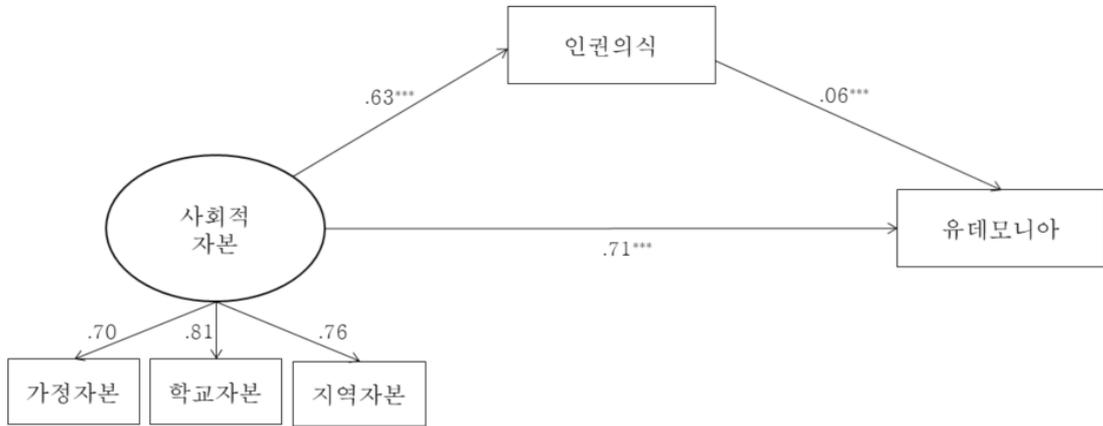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유테모니아에 직접적으로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적 자본은 유테모니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beta = .71, p < .001$ )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인권의식을 통해 유테모니아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인권의식( $\beta = .63, p < .001$ )에, 인권의식은 유테모니아( $\beta = .06, p < .001$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9,021)				
변인 간의 경로	B	$\beta$	SE	C.R.
사회적 자본 → 인권의식	.88	.63***	.02	52.90
인권의식 → 유테모니아	.06	.06***	.01	5.20
사회적 자본 → 유테모니아	1.01	.71***	.02	48.55

\*\*\*  $p < .001$



\*\*\*  $p < .001$

〈그림 2〉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이 유테모니아에 미치는 경로

본 연구모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이 유테모니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자본은 인권의식을 통해

유테모니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4, p < .01$ ). 즉,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유테모니아 간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이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5〉 연구모형의 효과계수

(N=9,021)					
변인 간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종속변인	독립/매개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인권의식	← 사회적 자본	.63***	-	.63***	.40
유테모니아	← 사회적 자본	.71***	.04**	.75***	.56
	← 인권의식	.06***	-	.06***	

\*\*  $p < .01$ , \*\*\*  $p < .001$

또한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은 유데모니아 분산의 약 56%를 설명하였다.

####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이 유데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은 유데모니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Diener & Seligman, 2002), 사회적 관계와 관계 내에서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희봉과 이희창, 2005)와 사회적 자본 요인은 다른 요인들보다 주관적 웰빙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들(심수진, 2016; Wang, 2014)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와 사회적 자본이 개인 및 집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lanchflower & Oswald, 2004; Putnam, 2000)와도 유사하다.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부모와 가족 등 가족 내 관계, 학교와 이웃 등 가족 외 사회에서의 관계가 좋을수록, 관계를 맺는 집단 안에서의 신뢰가 높을수록 산출되는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고, 이렇게 사회 내에서 축적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를 얻어(Cramm et al., 2013)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Ryff, 1989) 유데모니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가 빈약하고 그 속에서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청소년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이를 해결할 자원이 없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특성인 유데모니아가 낮아 삶에 적응하거나 성공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및 가정 외 사회관계 내에서 교류의 빈도 및 밀도를 높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를 위해서 부모 및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인권의식을 통해 유데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 간의 경로와 동일한 연구는 없었지만, 유사한 연구들 중 사회적 자본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몇몇 있어,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은 인권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박봉규, 2007), 가족의 지지(전준현, 2011)와 같은 가정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친인권적 교실문화(김영신, 2010), 청소년을 대하는 교사의 역할 및 태도(최순삼, 2003)와 같은 학교자본이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태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지역사회와 구성원 간 긍정적 인식과 신뢰로 형성되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높인다는 연구(천정웅과 박선희, 2016)와도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부모의 간섭과 금지, 통제가 적고,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상호 이해가 이루어지는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 자본, 학교와 교사, 학생들 간의 강한 사회적 연결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와 기대, 규범 등의 학교 자본, 지역사회 내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사회적 구조와 안정성 및 신뢰의 지역사회 자본은 그 정도가 견고할수

록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당연시 하거나, 서로의 인권을 인정해주는 의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남들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을 때 비로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천정웅과 박선희, 2016) 이러한 관계적 속성을 갖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어있을 때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은 높아진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을 가치있다고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성인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지적 자원인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권의식은 유데모니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식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self)가 없고,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지 못해 주관적 삶의 질이 낮다는 연구(Kosher & Ben-Arieh, 2017)와 인권관련 경험은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이민주 등, 2018)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풍부한 인권존중 경험을 지닌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박병금과 유은선, 2011)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유데모니아가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은 인권의식을 통해 유데모니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풍부한 사회적 자본은 인권의식을 높여 결과적으로 유데모니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화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환경인 가정에서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의 신뢰롭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자본은 아동에게 지지적인 환경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존중의 경험으로 볼 수 있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의 높은 인권의식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김진석, 2015; 박봉규, 2011). 또한 학교는 청소년이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교사와 또래 간의 신뢰와 존중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청소년의 높은 인권의식으로 이어진다(김영신과 박가나, 2014; 김진석, 2015). 지역사회 역시 다양한 자원과 환경 등의 교류를 통해 사회자본을 축적하게 되며, 이것은 자율성을 높이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높인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이렇게 다양한 관계자원으로부터 확보된 사회적 자본을 통해 높아진 인권의식은 스스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줄 알게 되어 개인의 목표나 학업에서 성취를 잘 하도록 이끌 가능성이 높아져 청소년의 유데모니아를 높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이 청소년의 유데모니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모나 교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참여 프로그램과 같은 중재적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의식, 신뢰를 형성하여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윤리적 행동을 더 많이 하며(주경희, 2015), 관계 내의 높아진 신뢰는 삶의 만족감과 같은 웰빙에 중요한 요인(박희봉과 이희창, 2005)이라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도,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는데 초점을 둔 방안들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데모니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교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중재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 및 개입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과 같은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는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유테모니아를 높이기 위한 요인에는 이외에도 개인의 성격 특성적 요인, 학업적 요인 등 다양한 관련 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하였으나, 학교 급별로 그 경로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후속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학교 급별로 나누어 검증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테모니아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유테모니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테모니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의 6차년도 자료(2018년)를 사용하여 초, 중, 고등학생 9,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유테모니아와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에서 도전에 맞서 성공하기 위해 유테모니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이

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자본과 인권의식이 유테모니아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유테모니아 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 제공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테모니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요인 및 다양한 환경 요인을 포함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구정화.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구보고 16-R1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김영신. (2010). *친인권적 교실 문화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3. 김영신, 박가나. (2014). *친인권적 교실문화 경향이 중학생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3), 85-100.
4.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5. 김진석. (2015).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구보고 15-R11-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정남, 홍봉선. (2000). *아동의 삶의 질: 과거, 현재, 미래*. *한국아동복지학*, 9, 9-48.
7. 박병금, 유은선. (2011).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 *청소년학연구*, 18(8), 89-116.
8. 박봉규.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9. 박봉규. (2011). *인권교육의 방향 탐색: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 관계분석*. *미국헌법연구*, 22(3), 91-126.
10. 박희봉, 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분석*. *한국정부학회*, 17(3), 709-729.

11.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12. 신미정, 이양수. (2018).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29(2), 185-207.
13. 심수진. (2016).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연구*, 21(3), 25-47.
14. 이민주, 정익중, 양옥경, 배은경. (2018).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경험이 학교생활적응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2, 263-286.
15. 이진향, 오미옥. (2014).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자치행정학회*, 28(3), 313-330.
16. 전준현. (2011). 사회적지와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지역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17. 정순돌, 성민현. (2012). 영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18. 정윤미, 강현아, 강현주. (2021).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권리존중이 아동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9(1), 31-47.
19. 주경희. (2015). 사회 자본이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5(4), 119-125.
20. 천정웅, 박선희. (2016).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4), 151-161.
21. 최순삼. (2003). 청소년의 인권존중을 위한 교사의 역할[석사학위논문]. 전북: 전북대학교 대학원.
22. 통계청. (2020). *2020 청소년 통계*. 대전: 통계청.
23. 한국교육개발원. (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6. Bentler P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27. Blanchflower DG, Oswald A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1359-1386.
28.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NY: Greenwood.
29. Browne MW,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30. Coleman J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UK: Harvard University Press.
31. Cramm JM, Van Dijk HM, Nieboer AP. (2013).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 social cohesion and social capital for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in the community. *The Gerontologist*, 53(1), 142-152.
32. Deci EL, Ryan RM. (2008). Hedonia, eudaimonia, and well-being: An introdu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11.
33. Diener E, Seligman M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34. Durkheim E. (1960).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7th e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35. Heinzelman SJ. (2018). Eudaimonia in the contemporary science of subjective

-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self-determination, and meaning in life. In E. Diener, S. Oishi & L. Tay (Eds.), *Handbook of well-being*. Salt Lake City, UT: DEF Publishers.
36. Helmstadter GC. (1964). Principles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New York, NY: Appleton-Century-Crofts.
  37. Horney K. (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The struggle toward self-realization*. New York, NY: Norton.
  38. Kazdin AE. (1993). Adolescent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48(2), 127-141.
  39. Kline R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40. Kosher H, Ben-Arieh A. (2017). What children think about their rights and their well-be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7(3), 256-273.
  41. Kosher H, Jiang S, Ben-Arieh A, Huebner ES. (2014). Advances in children's rights and children's well-being measurement: Implications for school psychologis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9(1), 7-20.
  42. Maslow A.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NY: Van Nostrand.
  43. Myers RH, Myers RH. (1990). Classical and modern regression with applications (Vol. 2, p. 488). Belmont, CA: Duxbury press.
  44.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45. Putnam R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46. Ryan RM, Deci E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47. Ryff C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i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7-1081.
  48. Streiner DL. (2003). Being inconsistent about consistency: When coefficient alpha does and doesn't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0(3), 217-222.
  49. Tavakol M, Dennick R. (2011). Making sense of Cronbach's alpha.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 53-55.
  50. Torsheim T, Wold B. (2001). School-related stress, school support, and somatic complaints: A general population stud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 293-303.
  51. Wang S. (2014).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No. 2014-02). KDI Research Monograph.
  52. Waterman A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78-691.
  53. Zimmer-Gembeck MJ, Skinner EA. (2008). Adolescents coping with stress: Development and diversity. *The Prevention Researcher*, 15(4), 3-7.